

자급자족적 농업실천과 농촌지역 활성화



권혁천
무주 귀농자

도시 생활을 접고 산골마을로 들어와 살아 온 10년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남들의 도전과 열정에 미칠 바는 아니겠지만 저 또한 나름대로 치열하게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몸과 정신의 한계를 수없이 넘나들며 일상속의 과정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직한 농심의 마음으로 바른 농사의 지향점을 찾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원하던 일이 아니었지만 귀농사례 발표제안을 요청받고 또 원고 독촉을 받고서야 이 기회를 빌어 농촌에서 용케도 버티며 유기농업을 실천하며 지역민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했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전북 진안입니다. 무진장(무주, 진안, 장수의 3개 군의 경계권으로 형성된 지역을 일컬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남덕유산 자락을 마주보고 부채살처럼 크고 작은 산들이 마을을 휘두르고 있는 작은 산골마을입니다.

아직도 전통농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부엌구조를 갖고 있는 집들이 적지 않고 소쟁기로 땅을 갈아 농사짓는 어른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밭농사 중심의 특용작물(인삼, 도라

지, 표고, 버섯, 수박, 고랭지배추 등)로 농사 짓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부부는 약 3,000평의 농지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물로는 감자, 양파, 고추 등을 비롯해서 잡곡(수수, 백태, 옥수수, 서리태, 서목태, 조, 팥, 기장) 등과 채소류를 재배하고 작년부터 오미자와 취나물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과 작물 생산을 겸하는 가족농 중심의 복합영농으로 우리의 전통농업방식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며 전체 농지를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기본은 건강한 토양관리에 있다는 선배들의 경험을 받아들여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 여러 형태로 유기농업을 실험하며 실천해 왔습니다. 땅의 지력을 유지하기위해 연작을 피하고 해마다 돌려짓기와 작물간의 혼작을 통해 다량이 전답을 필지별로 나누어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존중하는 유기농업을 실천해 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유기농업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근대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이라고 믿기에 온

몸으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일상의 고됨이 있지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보람을 느끼며 자급자족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고 농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절감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동의 힘으로 극복해 보자며 몇 년 전(1999년)에 인근지역으로 귀농한 이웃들 중에 생각이 비슷한 아홉가정이 모여서 바른 농사로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민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모색하기 위해 생산자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과 이력도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관도 농사방식도 저마다 조금씩 다른데다 모임 안에서 일을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소소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원들이 바뀌기도 했고 새로이 들어오는 지역민도 생겨 현재는 4개 군(무주, 진안, 장수, 완주)에 10여 가족이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지혜롭게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가족이 늘어나면서 가정별로 돌아가며 모이던 방식을 바꿔 진안 관내 공공기관을 빌려 모임을 매달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직거래 단체인 한살림과 관계를 맺고 유기농산물을 계약재배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량단위로 생산되는 잡곡, 채소류는 전주권에 있는 생협 등에 공동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회원들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먼 거리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고 출하하는 것이나 지역 내 여러 현안 문제들을 함께 참여하는 일에서 있어서도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귀농자중심의 생산자모임이 지역 내 주민들과 유기농업의 실천을 통한 지역농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좀 더 열린 시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고 직거래 단체인 생협들과도 진정한 도농교류의 장을 통해 생명농업 실천을 통한 활동들이 지역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지 못하고 단순히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이상으로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한계를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모임에서 그간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모임의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회원이 늘어나면 각 지역단위로 모임을 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또 다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정착한 귀농자들과 토착민들이 함께 행자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마을을 작년엔 신청하여 유치하게 되었고 그 운영을 공동으로 맡아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보화 마을 내에 친환경 농업 작목반을 구성하여 새로운 규약 안 등 올해 사업계획안을 세우고 회원들과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자상거래와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

자급자족적 농업실천과 농촌지역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임을 만들어가는 출발단계라 여러 가지 미숙함이 많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많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서

두르지 않고 작지만 내실 있게 한 단계씩 준비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민들과 더불어 바른 농사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부족한 힘이나마 노력할 것입니다. ㉞

〈2006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II) 심포지엄 사례발표 자료게재〉



▲ 자급자족적 농업실천과 농촌지역 활성화 주제로 사례발표 하는 권혁천 귀농자



▲ 2006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II) 심포지엄 장면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